

만으로 그치지 말고, 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알선함은 물론, 이들이 완치될 때까지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체격검사의 경우는, 측정자에 대한 측정방법의 충분한 교육과 검사기구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전문적인 사람에게 의뢰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함과 동시에 기구의 이상을 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점검일자를 잡아야 할 것이다.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검사종목의 3회 측정, 소수점 2자리까지 측정등, 현재의 실시 상태와는 거리가 먼 내용들은 현재 실무에 알맞도록 이의 시정이 필요된다고 본다.

## 서울시내 여자중학교 양호실 요양학생에 관한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 논문, 1983.

윤 정 옥

양호실에서 요양을 취한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여자중학교 하나를 편의상 임의로 선정하여 1982년 3월초부터 1983년 2월말까지 양호실에서 1시간 이상 요양을 취한 213명에 대해서 양호일지, 환경조사서, 건강기록부 및 학적부를 자료로 하여 양호실 요양양상을 학년별, 월별, 요일별 및 개인적인 특성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학생수 2,380명 중 요양을 취한 학생은 8.9%인 213명이었으며 학년별 요양학생 분포를 보면 2학년이 10.2%로 가장 많았고 1학년(8.7%), 3학년(7.7%)의 순이었다.

2. 1년간 수업일수는 223일로 1일 평균 요양학생수는 1.0명이었으며 월별 요양학생 분포를 보면 11월이 1.8명으로 가장 높았고 6월이 1.2명 12월이 1.2명순이었다.

3. 요일별 요양학생 분포를 보면 수요일이 22.1%, 월요일이 20.7%, 화요일이 17.8%의 순서로 전반적으로 주초에 요양율이 높았다.

4. 월별 호소증상 종류의 분포를 보면 11월의 요양학생 80.4%가 감기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7월에는 57.1%가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요일별 호소증상 종류의 분포를 보면, 수요일에 복통 25.5%로 가장 많았고 목요일에는 두통이 15.0%로 많았다.

개인적인 특성별로 호소증상 종류 분포를 보면 복통은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많이 호소하였으며 두통은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적게 호소하였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많이 호소하였다. 신체충실지수라, 마에 속하는 학생과 경험상태가 좋은 가정의 학생

은 빈혈과 비출혈이 적게 나타났다.

5. 학년별로 요양을 취한 시간을 보면 3학년에 2시간 이상 요양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6. 학년별 요양을 취한 회수는 2회 이상 반복 요양은 3학년이 5.6%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신체충실지수별로는 '가', '다', '마'에 속하는 학생이 2회이상 반복요양이 적었고 '나', '라'에 속하는 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1983.

이 영 숙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경험과 행위, 흡연하게 된 동기 및 흡연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2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남자 고등학교중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이를 주·야간 2개교로 각각 나눈후, 전학년중 2학년을 선택하여 최종 표본단위로서 6개학급씩을 단순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추출된 최종 표본단위인 각 학교에 속해있는 모든 학생을 조사 표본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본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설문지에 의거하여 각응답자가 직접 무기명으로 기입토록 하고 본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본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 대상자의 흡연실태

① 본 조사의 총 응답자 1,278명중 현재 흡연자가 30.2%, 과거 흡연자가 29.3%로 흡연경험자는 59.5%로 나타났다.

1973년의 고등학생들의 현재 흡연율 26.5%와 1976년의 32.2%와 비교해 보면 년도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기에 있는 조사대상학생들의 흡연율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청소년 문제로 남아 있다 하겠다.

② 주·야간별 흡연경험율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야간 학교가 갖는 특성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③ 주·야간 학생의 연령별 흡연율을 보면, 17, 18, 19세에서 야간의 현재 흡연율이 주간보다 높게 나타나 같은 연령에서도 주간보다는 야간학생이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